

사회

광주서도 귀화 면접

이주여성 한국 국적 취득 쉬워져

6천여명 불편 해소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도 과천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歸化) 면접시험이 1일부터 광주 등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1일부터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전국 14개 출입국사무소와 3개 출입국사무소 출장소로 확대된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8천932명이며 이 가운데 2008년 말까지 2천131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또 광주·

전남 귀화자 10명 중 9명은 이주여성들로 분류될 만큼 국제결혼에 따른 귀화 신청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이주여성은 그동안 귀화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을 방문해 면접을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들의 국적취득 및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

는 귀화 희망자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샘플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기업이 점단산업 종사자나 원어민 강사 등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3월부터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기간 연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없이 전자민원이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쌀도사’ 강대인씨 숨져

친환경농업 대부...고흥 팔영산 토굴서 단식 수련 중

‘쌀도사’로 알려진 유기농법의 대가 강대인(59) 전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지난달 30일 고흥군 팔영산 토굴에서 단식 수련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강씨가 심신수련을 하던 팔영산 토굴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강씨의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 토굴에서 심신수련을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해 이날로 88일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자신이 개발한 효소와 물만 먹으며 단식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식에 따른 탈진 등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선천이 농약 중독 후유증으로 사망한 뒤, 유기농단체 ‘정농회’에 가입하면서 유기농 실천을 다짐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국내



최초 비 부문 유기농 인증 획득을 비롯, 농업인 대상, 석탄산업협창, 자랑스런 전남인상, 친환경농업대상 생산자 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의 결실을 맺었다.

강씨는 친환경 농업에서 기능성 생산으로 한국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녹미(청라미), 적미, 흑황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강씨의 농법은 부인 전양순씨와 처녀 귀농인으로 잘 알려진 딸 선아씨가 이어갈 계획이다.

강씨의 장례는 보성군 벌교읍 보성삼상병원에서 ‘정농회장(5일장)’으로 진행되며, 3일 발인한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가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선성근기자 sun@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2분 해질 18시 00분 달돋이 20시 34분 달질 08시 30분

2월의 시작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 지겠다.

도시	기온
광주	흐린 뒤 맑음 2/6℃
목포	흐린 뒤 맑음 2/5℃
여수	흐린 뒤 맑음 4/6℃
완도	흐림 2/6℃
구례	흐림 0/6℃
애남	흐림 1/6℃
장흥	흐림 1/6℃
고흥	흐린 뒤 맑음 2/9℃
순천	흐린 뒤 맑음 2/8℃
영광	흐린 뒤 맑음 0/5℃
진도	흐림 2/6℃
전주	흐린 뒤 맑음 -1/5℃
남원	흐린 뒤 맑음 -2/5℃
옥산도	흐린 뒤 맑음 3/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관심 낮음 낮음
 서해 북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목포 03:22 08:40
 서해 북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15:57 21: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10:42 04:1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22:56 16: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3/2	-5/1	-5/2	-5/4	-4/6	-1/8

교차로 꼬리 물면 ‘딱지’

경찰, 오늘부터 광주 14곳 집중단속

1일부터 광주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 출퇴근 시간과 오후 4시 이후 교차로 ‘꼬리 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 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분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등이다.

집중단속 구간은 동구 한미쇼핑·남광주교차로를 비롯한 서구 운천·계수·광천·중앙(교차로), 남구 광주대·백운사거리, 북구 각화·전대입구·경신여고·운암사거리, 광산구 영광동·광주공항사거리 등 모두 14곳이다.

경찰은 상습적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기동대원 등 2~4명씩을 집중 배치하고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무인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태반주사 판매 정지

식약청, 5개 제품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 재평가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제품에 대해 최근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는 출산 당시 산성 간질한 치료제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녹십자의 ‘라이브 주’를 제외한 5개 품목은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경남제약 ‘플라젠 주’, 광동제약 ‘휴로센 주’, 구주제약 ‘라이온 주’, 대인원제약 ‘뉴트론 주’, 드림파마 ‘클라린 주’ 등 5품목이다.

/연합수

“옛 재단측 이사 선임 묵과 않겠다”

전호중 조선대 총장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1일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출범과 동시에 조선대 이사 9명 중 결원인 2명에 대한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조선대 총장이 담화문을 통해 이를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호중 조선대 총장은 지난달 31일 담화문을 통해 “사분위가 2명의 결원 이사를 옛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할 경우 우리 대학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상화의 기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명의 결원이사 선임권은 사립 학교법과 민법에 근거, 조선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선대 교수협의회와 노조 등의 대표는 최근 교과부를 방문, 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추천과 관련 정애리시·박성섭씨 등 종전이사에게 교과부가 특별대우를 한데 항의하는 한편, 조선대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 등에 제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5·18 묘지에 51.8m 국기계양대

30주년 기념·3억 들여

16개 시도 상징 깃발도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51.8m 높이의 대형 국기계양대와 16개 광역시도를 상징하는 깃발 계양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5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3억원의 예산을 들여 5·18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형 계양대 설치 사업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형 국기 계양대는 5·18민주묘지 내에 들어서며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대형 태극기가 계양될 예정이다.

/윤원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MBC 문화방송

장사직향

고대님들의 장례비용 요지 - 행복상생! 최고의 행복도를 사행하는 광주 MBC 문화방송!

무안 ↔ 장사직향

★ 단 5회 전행비용 3/13, 3/17, 3/20, 3/24, 3/27 **₩ 699,000~**

광주 MBC 문화방송 전세기 사무실 051-226-6070